조주지 절

조주지 절은 아름다운 자연 경관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돌계단 양쪽에 심어진 단풍나무가 선명하게 물드는 가을에 특히 인기가 있습니다. 경내에 심어진 2 종의 희귀한 대나무(사방죽과 구갑죽)가 차분한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. 황벽종(黃檗宗)은 선종의 일파로서 독특한 건축 양식을 볼 수 있는 것도 특징입니다.

역사

조주지 절은 810 년에 천태종 승려인 엔닌(794~864 년)에 의해 창건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. 그 뒤 13 세기 중반에 구게(조정에 출사한 귀족이나 관료)인 하무로 가문이 조주지 절을 지원해 재건했고, 나아가 1689 년에 황벽종 사원으로서 재건되었습니다. 황벽종은 17 세기에 중국에서 전해진 종파로서 사원 건축과 독경 양식, 승려의 법복에서는 명나라(1368~1644 년) 문화의 강한 영향력을 볼 수 있습니다.

본당

본당은 좌선당으로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. 본존은 석가여래상으로 도코노마(그림이나 글씨 등을 걸거나 장식물을 놓기 위해 일본식 방의 바닥을 한 단 높게 만든 곳) 양쪽에는 그 외에도 여러 구의 불상이 안치되어 있습니다. 본당 뒤쪽부터 이하이도(位牌堂), 가이산도(開山堂), 주토(壽塔, 생존 시에 지어두는 탑파)를 직선적으로 배치한 건축 양식은 황벽종의 전형적인 양식입니다.

방장

방장 건물은 옛날에 센다이번의 번주 다테 쓰나무라(1659~1719 년)가 소유했던 것으로서 쓰나무라가 2 세의 나이로 번주의 지위를 계승했기 때문에 경호인이 숨어 있는 공간이나 유아 크기의 긴급탈출용 구멍이 있습니다. 방장에는 가노 에이가쿠(1790~1867 년)의 운룡도(雲龍圖) 병풍과 중국의 풍경을 그린 맹장지 등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. 툇마루에서는 수련이 피는 연못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. 방장은 황금연휴(4 월 말~5 월 초)와 가을 기간에 일반에 공개되고 있습니다.